



비웃이 리대 생각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원.
우리는 향을 바원.



2002년 4월 13일 태국에서 열린 WBA 세계 슈퍼 페더급 타이틀 매치에 부심으로 참가하여 시합 전 남아공의 Stanley 주심과 함께 관광. Stanley는 130여회의 세계 타이틀 매치 심판을 보아 2004년 복싱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심판임.